



<div>정부혁신 보다는 정부+</div>		<div>보도자료</div>		<div>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</div>
<div> 산림청</div>				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총 2쪽	
배포일자	2021. 7. 27.(화)	담당부서	국유림경영과	
담당과장	주요원(042-481-4090)	담당자	사무관 이상언(042-481-4095)	

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

-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도입으로 산주 소득 안정화 기여 -

- 산림청(청장 최병암)은 산림 소유자(산주)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 줄 수 있는 「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」를 27일 신규 도입·시행한다.
- 「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」는 매매대금(감정평가액)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“(일시지급형)사유림 매수제도”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(120개월)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,
-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.
- 「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」를 통해 산주는 변변한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,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어 산주와 국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- 본 제도를 통해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, ‘산림청 누리집 (www.forest.go.kr) → 행정정보 → 알림정보 → 공고’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,
-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

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.

- 최병암 산림청장은 “『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』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의 요구를 수렴해 금년부터 새로 도입·시행되는 제도로써,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 앞으로도 산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

불임파일 : 해당 없음.
첨부파일 : 관련 사진 2매.

